

투데이 칼럼

선수의 인권과 지도자의 인권

우리나라 5천여 년 역사에 사람이 사람대접 받은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 대부분 보이지 않게 '갑'을 관계로 성립되어 있어 부지불식간에 '갑'은 '을'에게 여러모로 상대적 우위에 있게 되고 그렇게 인식된 사회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다.

인권(人權) 사전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 나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현실 상황에서 실제화가 되지 못했기에 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 군대나 학교 이룬 바 '갑'과 '을'의 사이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했다. 사소한 일로도 일방적으로 때리고 맞는 것이 실상이었다. 말로는 그러려니 안 된다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감출 수 없는 사실이었다.

군사독재, 아민의 시대를 지나 서서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일반 대중은 인권에 눈을 뜨게 되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향상되어 사람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 윤 희  
(주)파시코 대표이사

다만 체계적인 학습, 보편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무조건 '인권'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급격히 진전되고 목격된다.

각 분야의 현장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실질적 적법, 위법여부를 떠나 사소한 민원이 반발하고 그 간의 사회를 지탱한 위계질서, 상호 존중감을 넘어 무시하는 일면도 종종 발생한다.

스포츠 현장도 마찬가지다. 스포츠, 운동 자체가 평안이나 안정보다는 비상이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경기, 승부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담겨진 속성이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의견, 해석과는 달리 서로의 인권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최근에 몇 가지 유사한 사례에서 그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예전에 국가대표를 지낸 운동부 지도자가 선수의 훈련과정에서 독려하기 위해 고성을 냈다. 또한 몇몇 사소한 일로 질책을 했는데 선수들은 그런 사안들을 묶어 지도자를 고발했고 해당사안을 대상으로 회의가 열렸다.

결과는 선수들의 의견만 수용되고 지도자의 의견은 무시된 채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를 납득할 수 없고 생계가 막막해진 지도자는 재심을 신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국 자격정지 징계는 철회되고 말았다.

일선지도자가 학부모들과 차를 마시며 훈련일정 논의, 진로지도 겸

대화를 했다.

지도자는 대화과정에서 느낌이 별로였고 먼저 본인의 착각도 지불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에 자간한 일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이런저런 것이 쌓였던 어떤 학부모는 부당행위로 학교에 고발을 했고 관련 회의에서 가장 아래 단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지도자는 그 동안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게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후 지도자는 상위기관에서 '해당사항 없음' '원인무효'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선수 앞에 지도자로 다시 서야하냐'라는 자책과 회한이 몰려 오더라'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간에 떨어졌던 지도자의 인권과 명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죽하면 모 TV 방송으로 중계되는 현장에서 여영부영하는 선수를 질책하며 '야! 감독이 이런 말도 못하냐?'라고 할 정도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혼돈의 세계에 휩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사설

춤추는 로봇

로봇(robot)은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Atlas)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두 발로 걷고 달리고 춤추는 로봇들이 신기하기는 한데, 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이 꼭 불안한 이족보행(二足歩行)을 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이족보행 로봇은 사람을 위해 설계된 세계를 돌아다니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우리 로봇은 평평한 바닥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야외 지형을 이동하며, 탁(역석)이나 케이블 커버 같은 장애물을 넘는 등 복잡한 공간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산 공장에 최초로 투입된 로봇은 인간의 형체와는 거리가 먼 '로봇 팔(robot arm)'이었다. 용접이나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작업은 '이동성(mobility)' 보다 힘센 근

육이나 조립안정성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능 중 '발' 기능만 따로 떼어 개발된 것이다. 바퀴에서 두 발로 로봇이 진화한다는 논리도 설 땅이 없다. 인간은 오래 전부터 이동수단으로 말이라는 사족보행 동물을 이용했다.

그 다음으로 선택된 수단은 말이 끄는 마차, 즉 바퀴와 사족보행의 결합(하이브리드)이었고, 이제는 자동차·자전거라는 바퀴로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는가. 이동수단 진화의 역사는 명백히 이족·사족보행에서 바퀴로의 이동이었다.

문제는 로봇을 비롯한 신기술도 입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문제이다. 즉, 이 혼합체계가 인간 노동자와 생산로봇의 협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오류 수습용 보험장치'로 전락시킬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상호 사진전 '빈 등지'

제7회 정상호 사진전 '빈 등지'가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본관 1층 기획전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사라진 아이들, 남겨진 공간'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빈 등지는 이제 농촌의 한 가정이나 한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2025년도 작년 새 학기 때도 전 북지역에서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총 29곳에 이르고 있다.

교실의 불이 꺼지고 운동장의 아이들 발걸음 소리가 사라져가는 풍경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이번 전시는 단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의 기록이 아니다. 다시 채워지기를 바라는 미래의

자리를 바라보는 작은 시도이다.

빈 등지는 끝이 아니다. 누군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정상호 작가는 그동안 개인전을 비롯 단체전 등 솔하게 많은 전시를 해왔다.

이 가운데 제6회 도깨비불 흔적, 제5회 뚜벅뚜벅 미안마을 걷다, 제4회 서울 강남의 마지막 관자촌, 2020 어촌일기, 제2회 여행에서 만난 인연들, 제1회 해녀들의 삶 등이 있다.

'청록사우회' 회원전 5회, '전주 이동갤러리' 꽃심 참여작가전, 진 북문회의 집' 사진동호회회원전 등에도 출품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한국 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정회원, 전 호남제일신문 명예사진기자 역임, 전 청록사우회 정회원, 전 한국영상동인회 정회원 등을 지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피플 파워' 40주년, 행진하는 필리핀 수녀들



28일(현지 시간)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열린 민주화 혁명 '피플 파워'(People Power)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천주교 수녀들이 행진하고 있다. '피플 파워'는 1986년 2월 25일 시민과 가톨릭 단체가 비폭력으로 당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20년 독재를 종식한 민주화 혁명이다.

트럼프에 인종차별 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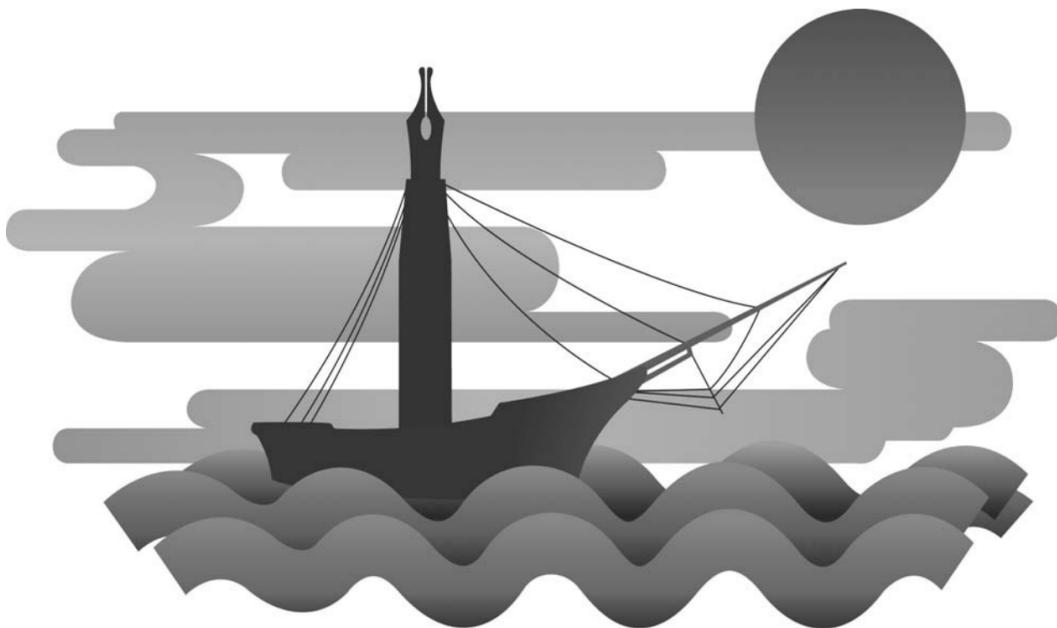
텍사스주 민주당 소속 앨 그린 하원의원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흑인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